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19~2016.10.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일상서 어떻게 空 실천할까?… '생의 존재'로 회귀해야

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

요코야마 코이츠 지음 | 허암 김명우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8500원



이 책의 저자 요코야마 코이츠 교수는 연구와 수행을 병행하는 일본의 저명한 유식학자이다. 그가 2000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년에 걸쳐 일본 흥복사 불교문화 강좌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흥복사는 중국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 제자인 자은 대사 규기가 창종한 법상종의 일본 대본산이다. 법상종은 인도서 발생한 유식유가행파에 그 기원을 두는데, 이 학파는 '오직 식(識)뿐이다'라는 유심론적 사상을 창출하고, 요가 실천을 중시한다.

〈반야심경〉서 '심(心)'에 해당하는 범어 '흐리다야'는 '심장(心臟)'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야심경〉이란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에 의해 번역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에 수록된 반야 사상의 핵심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경전이다. 유식사상은 우선 '식(識)'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그 바탕서 실천을 통해 식을 변혁해 '공'에 이르고자 한다.

마음의 존재를 인정한 유식사상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공사상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식서 인정하는 마음(아뢰야식, 말나식, 의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유식서도 공사상처럼 마지막에는 마음마저 부정한다. 따라서 유식의 마지막 지향점은 〈반야심경〉서 주장하는 공과 다르지 않다. 서로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천적 면에서 반야경은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것을 중심적으로 설하는 반면, 유식의 경론은 요가 수행을 강조한다. 또한 유식에서는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말나식·아뢰야식의 여덟 가지 식이나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의 삼성설(三性說)을 설한다.

이 책서는 이 점을 바탕으로 삼아 요가·팔식·삼성이라는 유식사상의 새로운 용어와 '일인일우주' '생의 존재' 등과 같이 일본어 사전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 〈반야심경〉을 해설한다.

유식학파서 강조하는 요가란 내용적으로는 '지관(止觀)'이다. 지(止)는 조용히 가라앉은 마음을 의미하고, 관(觀)이란 관찰하는 마음이다. 비유하자면 파도가 잠잠해진 물이 지의 마음이고, 그 위에 둥근 달을 그대로 비추는 작용이 관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평상시 마음은 산란심(散亂心), 이른바 어지러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말해도 전부 틀린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의 모습 그 자체를 나는 결코 볼 수 없다. 저자는 이를 '일인일우주'라 부른다. '나'를 보는 '당신'은 '나'라는 우주, 즉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낸 영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인일우주'를 유식 용어로 말하면 '인인유식(人人唯識)'이라 하는데, 저자는 우리가 우선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서,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유식사상으로 반야심경의 공 사상 해설
유식학파서 강조하는 요가는 '지관'
존재 전체 '공'으로의 관찰 필요

강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공'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독교에는 '신(神)'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서 이에 상당하는 말이 있다면 '청정'일 것이다. 그러나 '청정하게 되자'는 것은 불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우리들이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청정하게 된다면 선악을 구별하는 장애가 없어지고, 선악에 구애되지 않는 대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대범한 마음을 설하는 것이다.

힌두교(바라문교)서는 선을 쌓아 사후에 천계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 천계에 태어나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괴로움의 세계기 때문이다. 불교는 선악을 벗어난 공의 세계에 이르러 모든 것은 공하다고, 즉 '중(中)'이라고 알고, 그 '중'을 실천해 최종적으로는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은 '자타' '선악' 등과 같은 차별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저 사람 싫어, 이 사람은 좋아'라 생각하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선선해서 좋아"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범부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여기며 온갖 것들을 갖가지로 차별하고 분별한다. 그러나 이런 '분별된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저자는 분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옳고 그름, 즉 일상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공' 사상을 알지 못하고, '변계소집성의 세계'만이 전부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특히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현대 사회서, 젊은이들은 그 정보에 의해 심어진 생각들로 인해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 살면서 미혹하고 괴로워한다고 통탄한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에 의해 진여를 증득해야 한다.

우왕좌왕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별된 존재'로부터 '생의 존재'로 되돌아와야 한다. '생의 존재'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 요가나 선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불교는 존재를 '공'이라 관찰하고, 그 지혜를 발판으로 살아가는, 즉 '실천'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나와 내 주변에 펼쳐진 존재 전체는 '공'이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반야심경〉서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왜 '공'인가? 간단히 말하면 삼라만상은 연기에 의해 이뤄져 있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자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라는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슬로건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자타불이(自他不異)의 평등한 세계와 접하자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로나온책



신라불교의 개척자들

신종원 지음 | 글마당 펴냄 | 1만 3천원

저자는 이 책서 56여장의 올 칼라로된 신라 유적지 관련 사진들과 도표(5종)로 집대성한 자료들까지 덧붙여 웅장한 신라불교 역사의 체취를 독자들이 한눈에 느끼게 해준다. 진정한 사회적 개혁은 이상사회의 이미지가 분명히 제시됐을 때 일어난다. 그 역할을 초기의 신라 고승들이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전문화의 창조라는 진정한 문화변혁을 이끌어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신라 고도의 곳곳에 남아있는 금석문· 돌미륵· 무덤, 때로는 지금 막 발굴되는 각종 유물들과 문헌에 살아있다. 따라서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불교사만 다룬 저서는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초기 불교사의 해명을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학계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불교가 전래되기 전의 샤머니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료를 들어가면서 논하고 이미 고등종교가 요구되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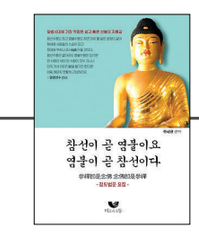
부처님과 곤줄박이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 대양미디어 펴냄 | 1만원

이 책은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의 연간집이다. 책 속에는 동시를 비롯해 동화, 아동극본,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들이 실려 있다. 우선 신현득 前 회장의 〈날개단 교실〉 등 회원 54명의 동시 작품 92편이 수록됐다. 이어 이 영호 前 회장의 〈부처님과 곤줄박이〉 등 18인의 단편동화 각 1편씩 18편과 한국 아동문학 동극 장르에서는 유일한 작가 곽영석 회원의 동극 〈칠불암의 문수동자〉, 박춘근 회원의 수필 〈지난 그 어느 날의 이야기〉, 정명숙 회원의 기행문 〈숙이의 유람선 문화 엿보기〉 등 올해 창작한 아동문학 작품을 싣고 있다.

책 속에는 "지난 유월 첫날 부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본생경으로 동화를 쓰고 있다지? 착하구나 그건 3천년 전 얘가 들려준 얘기다. 잘 써봐라. 나는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지." 등 무한 동심의 세계가 불심과 함께 녹아 있다.

이창규 회장은 "어린이를 둔 학부모가 먼저 읽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다

비움과 소통 펴냄 | 주세규 편저 | 1만 4500원

이 책은 석가모니부처님, 그리고 과위를 증득한 조사님이나 고승들께서 염불에 관한 법문 중 핵심적이면서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회집(會集)한 책이다. 많은 염불 수행법 중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거나 속으로 부르는 지명염불(칭명염불)을 중심으로 법문과 수행법 등을 모아 놓은 정토서다.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많은 종교서 널리 권장하는 보편적 수행법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과 천상의 스승으로 받들어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일은 가장 성스럽고 불가사의한 수행법이. 그럼에도 지금까지 염불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돼 왔다. 이런 편견을 깨부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수행 해 극락 왕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13년도에 펴낸 약 1,000쪽 분량의〈염불수행대전〉을 축약하고 새로운 부분을 보충했으며, '정토법문 요집'이란 부제를 달았다. 그리고 부록으로 세 가지를 추가해서 실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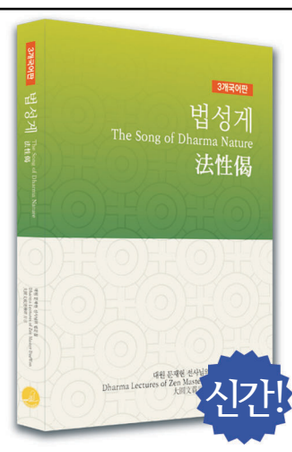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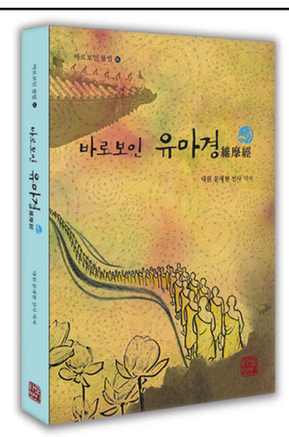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용성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법성게 3개국어판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구,바로보인) ☎ 031-534-3373